

보도자료



보도일	2012. 10. 12.(금)		
배포일	2012. 10. 12.(금)	홍보담당	기획처 홍보팀(880-5054)
담당부서	기획처 기획과	문의	정봉문 기획과장(880-5080) 김지현 사무관(880-5116)

제 목: 2012년 '제2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

승효상 (주)이로재 대표, 신영균 (주)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
황창규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

□ 서울대학교는 2012년 '제2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에 건축예술의 새로운 장을 연 승효상 (주)이로재 대표(60, 건축학과 졸업), 우리나라 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한 신영균 (주)한주홀딩스코리아 명예회장(84, 치의학과 졸업), 반도체 산업 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성장에 기여한 황창규 지식경제R&D 전략기획단장(59, 전기공학과 졸업)을 선정하였다.

□ '2012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된 3명은 인간의 이기적인 유전자에도 불구하고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여, 한국 사회에서 존경받을 만한 '위대함'을 보여준 분들이다. '공감', 이웃의 희노애락을 나의 희노애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능력은 21세기 최고지도자에게 가장 절실히 요구된다. '공감'의 마음은 '자신으로부터 한 걸음 밖으로 나가는' 엑스타시(ek-stasis)의 단계이며 '자신을 남으로 채우는' 무아(無我)의 경지로 들어가는 행위이다. 우리는 대학교육을 통해, 우리가 아닌 다른 것들을 배운다. 그것들을 배우는 이유는 내 자신이 욕심에서 벗어나 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연습을 하여, 인간 마음에 내재한 '공감'의 위대함

을 ‘밖으로 꺼내기’ 위함이다. 그리고 인간은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는 ‘나-중심’적인 삶에서 벗어나 나와 너의 구분이 없는 ‘우리-중심’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 역사상 위대한 족적을 남긴 분들의 아이디어를 공부한다. 궁극적으로 자신을 초월하여 이웃과의 공동체적 가치, 나아가 사회나 국가, 인류를 향한 보편적인 가치를 추구한다. 올해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된 분들은 인간의 마음에 내재한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여, 인류를 향한 공동체적 가치를 추구하기 위해 평생을 헌신해온 분들이다.

□ ‘우리 시대 우리의 건축’을 추구하는 승효상 대표는 20여년간 ‘빈자(貧者)의 미학’ 주제를 중심에 두는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건축예술 작가이다. 한국 건축의 거장 김수근 선생을 사사했고, 건축가로는 처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선정 ‘올해의 작가’에 뽑혔으며, 파주출판도시 코디네이터와 2011년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으로 활동했다. 베니스비엔날레 전시, 펜실베이니아대 초청 건축전, 베를린 AEDS 갤러리 초청 등 국제 우수 전시회로 대한민국 대표 건축가로 활동하였다.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한국건축문화대상, 김수근문화상 등을 수상했다.

□ 신영균 명예회장은 1960-70년대 한국영화 전성기를 이끈 배우로, 대한민국의 문화적 역량을 크게 높인 문화예술인으로 평생을 헌신해왔다. 장학사업과 단편청소년 화제를 통한 영화인재 발굴 등 신영문화예술재단을 통한 공헌활동은 우리나라 영화 발전에 큰 토대가 되었다. 2010년에는 500여억원 규모의 사재를 전액 사회에 환원하고 신영균예술문화재단을 창립하여, 우리 사회에 잔잔하면서도 큰 감동과 사회적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국민훈장 동백장, 대한민국 대중문화예술상 은관문화훈장, 대한민국영화대상 공로상 등을 수상했다.

□ 황창규 단장은 2002년 삼성전자 메모리사업부장(대표이사 사장) 시절 ISSCC에서

‘메모리 신성장 이론’ (이른바 ‘황의 법칙’)을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의 정설이던 무어의 법칙을 다시 쓰게 하고, 반도체 산업의 획기적 전환을 이끌어냈다. 최고 수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식경제R&D전략기획단장을 맡아 국가 R&D 전략수립,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힐 선도적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다. 대한민국 최고과학기술인상, 미국 IT업계 노벨상으로 불리는 기술리더상 등을 수상했고, 세계 10대 신사고 혁신 경영인(뉴스위크), 한국을 일으킨 엔지니어 60인(공학한림원 등) 등에 선정되었다.

□ 서울대학교는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국가와 인류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서울대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분들을 ‘자랑스러운 서울대인’으로 선정해오고 있다. 지난 1991년부터 선정해 오고 있으며, 그 소중한 의미를 한층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해 매년 개교기념식 행사에 초청하여 선정증서를 수여하고 있다.

□ 올해 ‘제22회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선정증서 수여식은 2012년 10월 12일(금) 오전 10시 30분 문화관 중강당에서 열리는 제66주년 개교기념식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 참조: 개교기념식 주요 식순(2012. 10. 12 10:30 문화관 중강당)

- 국민의례
- 교직원 및 학생 표창: 근속 교직원, 관악봉사상(학생), 사회봉사활동 체험수기 (학생)
- 자랑스러운 서울대인 발표 및 선정증서 증정
- 개교기념사(총장)
- 축사(조완규 전임총장, 총동창회장)
- 축하 연주, 교가 제창